

길영에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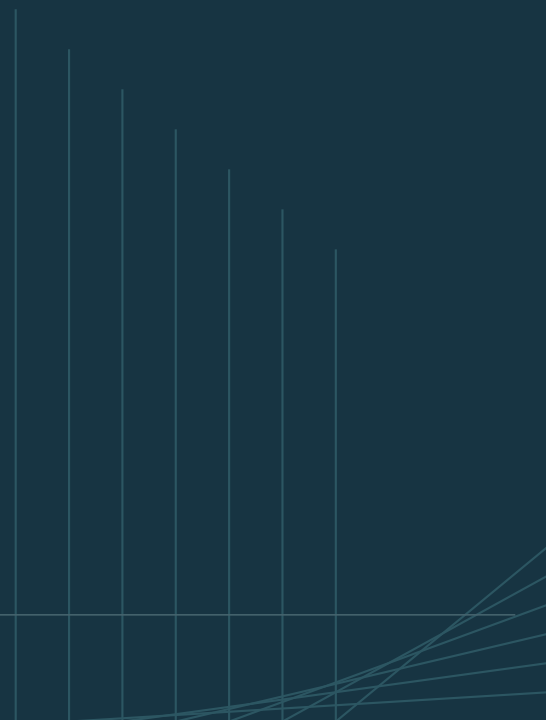
2027학년도 EBS 수록 작품 기반

수능 문학 FINAL 모의고사

제1~5회 통합본

문제 · 정답 · 문학 논리 해설

문학을 독서처럼,
독서를 수학처럼 풀자.



05

실전 모의고사

85

자체 출제 문항

01

한 권의 통합 교재

이 책의 구성과 활용법

실전 5회 · 회당 17문항 · 총 85문항

근거를 찾아, 선지의 판단을 끝내는 연습

2027학년도 EBS 수특 작품을 바탕으로 길영에듀가 자체 출제 한 문학 실전 교재입니다. 고전소설, 현대시·수필, 현대소설, 고전시가를 회차마다 고르게 다루며 지문과 선지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기릅니다.

해설은 각 선지의 원문 근거와 적절성 판단을 연결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학생도 판단의 과정을 따라가도록 구성했습니다.

회차별 공통 구성

고전소설 4문항	현대시·수필 6문항	현대소설 4문항	고전시가 3문항
-------------	---------------	-------------	-------------

학습 순서

- 01** 실전 풀이 회차별 17문항을 먼저 풀고, 판단이 어려웠던 선지에 표시합니다.
- 02** 근거 대조 채점한 뒤, 오답과 망설인 문항의 선지별 근거·풀이를 대조합니다.
- 03** 판단 복원 주체, 사건의 순서, 표현과 효과를 구별하며 판단이 달라진 지점을 찾습니다.
- 04** 다시 풀기 해설을 덮고 다시 풀며, 자신의 말로 선택의 근거를 설명합니다.

집필·제작 이길용 · 길영에듀

EBS 수특 작품 기반 길영에듀 자체 출제 문항과 논리 해설을 수록했습니다.

목차

각 회차의 문제편과 해설편 쪽수를 누르면 바로 이동합니다.

01	제1회	문제 005	해설 062
	고전소설 현대시·수필 현대소설 고전시가	금방울전 와사등·연륜·산촌 여정 치숙 면앙정가·만흥	

02	제2회	문제 017	해설 075
	고전소설 현대시·수필 현대소설 고전시가	장풍운전 그 여름의 끝·흐름에 대하여·한정록 서 줄 만전춘별사·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03	제3회	문제 028	해설 088
	고전소설 현대시·수필 현대소설 고전시가	웅고집전 꽃·누룩·뿌리가 꽃이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돌니 유산가·백석정별곡	

04	제4회	문제 039	해설 103
	고전소설 현대시·수필 현대소설 고전시가	운영전 나비의 여행·새 1·까치 양과자갑 부여노정기·황강구곡가	

05	제5회	문제 050	해설 119
	고전소설 현대시·수필 현대소설 고전시가	강로전 자화상·목계 장터·선부 자화상 견습 환자 월곡답가·규원가	

정답 한눈에 보기	061
------------------	------------

PDF 책갈피와 하단의 문제·해설 표기로 회차 사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룡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황성에 이르니, 이때 천자가 만조(滿朝)를 거느리시고 성 밖으로 나오셔서 맞으사 환궁하실새 성 안팎의 백성들이 길에 가득하여 만세를 부르며 상하 인민이 기뻐 뛰면서 환성(歡聲)이 원근에 진동하더라.

바로 대전(大殿)에 들어가시니, 이때 황후는 공주를 찾아움을 들으시고 슬픔을 억제치 못하시다가 크게 기뻐하시며 한편 공주를 안으시고 낮을 맞대며 통곡하시며 천자 또한 눈물을 흘리오시며, 공주가 울기를 그치고 요괴에게 잡혀가서 고행(苦行)을 무수히 겪던 사연이며 ‘꿈속에 선인(仙人)이 내려와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라고 하고, ‘금일 오시(午時)에 이 굴을 속히 들어와 그 요괴를 잡고 같이 나아가 부황(父皇)과 모후(母后)를 만나리라.’ 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오며, 또한 천지조화로 된 금령이 신통함이 기이하여 재주와 수단을 부리고, 해룡이 요괴 잡던 일의 전말을 낱낱이 고하니 황후가 금령을 어루만지시며 가라사되,

“하늘이 이로써 너 같은 신령스런 물건을 내어 신통이 거룩하고 재주가 비상하고 기이하여 그런 독도한 요괴를 잡고 공주와 시녀를 구해 인간 세상의 몫쓸 짐승을 없이하고 짐으로 하여금 잃었던 공주를 다시 만나 천륜이 온전하게 하니 이는 다 네 덕이요 장해룡의 공이라. ㉠이런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하시고, 이에 황극전으로 나아가 전좌(殿坐)하사 문무 신하, 종신과 외척, 근시하는 모든 궁녀를 다 모으시고 한편 해룡을 불러들이시니 해룡이 들어와 머리를 조아리며 백배사은하는데, 천자가 보시니 용모가 당당하고 태도가 늠름하여 만고의 영웅 준걸이요 일세의 호걸 장부라. 천자가 한 번 보고 크게 기뻐하여 해룡의 손을 잡으시고 가로시되,

“이제 경의 공을 의논할진대 태산이 낮고 하해(河海)가 얕은지라. 그 값을 바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고, 또한 공주의 꿈 이야기를 거론하시며 알,

“이제 공주의 꿈 이야기를 의논할진대, 경과 공주는 천정배필이라. 경은 모름지기 공주를 더럽다 말고 ㉡이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족히 경의 건줄*을 받들 것이니 경은 짐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하시고, 부마를 삼고자 하실새 바빠 예부에 명하사,

“㉢택일(擇日)하라.” / 하시고, 호부에 조서를 내려 하교하사 한편,

“청화문 밖에 별궁을 지으사 화원을 벌여 대전과 통하게 하여 출입하게 하라.”

하시고, 한편 예부로 하여금, / “혼구(婚具)를 갖추어 차리라.” / 하시니라.

해룡이 천은(天恩)을 입사와 그 은혜에 사례하고 물러 나와 어림군을 관리하며 다스릴새, 군기와 군벌을 가르치고 연습하며 밤낮으로 나태한 마음을 먹지 않고 분주히 국사를 극진히 살피더니, 어느덧 혼인날이 다다랐는지라.

[중략 부분 줄거리] 부마가 된 해룡은 복흥노가 침범하자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가 큰 위기에 처하지만 금령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왕에 봉해진다. 이후 해룡은 어사가 되어 여러 고을을 순찰한다.

이때 어사의 행로(行路)가 서울로 향할새 길이 뇌양현을 지나는지라. 뇌양현에 이르러 객사에 숙소를 정할새, 어사가 관가에 들어가 본관 사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새 자연히 마음과 뜻이 서로 맞아 밤이 깊도록 담화하다가 사또에게 하직하고 돌아가는지라.

어사는 자연히 번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백발노인이 눈앞에 이르러 길게 읊하고 말하되,

“그대 비록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영웅호걸로 명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위엄을 천하에 떨쳤으니 자기를 낳아 준 부모를 곁에 두고도 찾지 아니하여 평생 죄인이 되고자 하니, 이는 정성이 부족하여 자식의 도리를 차리지 못하는 것이니 내가 그대를 위해 부끄러워하노라.”

하니, 어사가 이 말을 들으매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노인을 붙잡고 다시 묻고자 하다가 깨어나니 남가 일몽(南柯一夢)이라. 매우 이상하여 다시 자지 못하고 관가로 들어가니, 사또가 대청에서 내려와 영접하여 이야기를 나눌새, 어사가 문득 본즉 벽 위에 걸린 [족자]가 자기 주머니 속의 족자와 같거늘 자세히 보고 크게 의아하여 물어 알,

“족자의 그림이 무슨 내용이옵니까?” / 하니 사또가 슬퍼하며 알,

“노부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더니 전란 중에 잃은 지 십팔 년이라.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괴로워하더니 마침 어떤 이인(異人)이 제 마음을 알고 저 그림을 그려 주기로 걸어 두고 보나이다.”

하거늘, 어사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비단 주머니를 열어 족자 하나를 내어 걸거늘, 사또가 보니 두 족자 작은 차이도 없어 조금도 다름이 없거늘, 사또와 어사가 서로 괴이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겨 의아해하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서로 발설(發說)치 못하고 주저하다가 사또가 어사에게 문 알,

“㉣그 족자는 어디서 났소? 몹시 괴이한 일이 있으니 속이지 말고 자세히 말씀 주시오.”

하거늘, 어사 또한 신기하게 여겨 자세히 자초지종을 일일이 다 고한 후에 금령의 조화로 입신양명하여 귀하게 된 말이며 나중에 금령이 갈 때에 족자를 주고 가

던 사연을 낱낱이 고하니, 사또가 이 말을 듣고 어린 듯
취한 듯 어찌할 줄 모르고, 또한 목이 메어 가로되,

“나도 금령에 대해 할 말이 있노라.” / 하고, 또 가로
되,

“이 족자도 금령이 물어 온 것이오, ㉠금령을 여러 해
보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허물을 벗고 나니 온갖 아릅
다운 자태를 갖춘, 만고에 드문 절색(絶色)이라.” / 하
고, 또 가로되,

“내 아이는 등에 일곱 개의 사마귀가 복두칠성처럼
나 있으니 이것으로 내 아들임을 아노라.”

[A]

하니, 어사가 이 말을 듣고 문득 실성통곡하거늘 사
또가 또한 통곡함을 마지아니하니 이때 부인이 내달아
어사를 안고 세 사람이 일시에 어우러져 통곡하니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산천의 초목이 슬퍼하는 듯하더라. 차시에 온 고을 사
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뉘 아니 신기하게 여기며 뉘 아
니 이상히 여기리오?

어사가 울음을 그치고 꿇어 고(告)하여 왈,

“소자,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를 만나 뵈오니
그 죄 만사무석(萬死無惜)*이오나, 또한 하늘이 우리
를 보살피시어 금령에게 지시하여 이 일이 있게 되었습
니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 임사: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 무왕의 어머니인 태사
를 함께 이르는 말로 그 둘은 부녀가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잘 지
킨 인물들로 유명함.

* 건줄: 수건과 빗을 뜻하며, 부인이 남편에게 자신을 겸손하게 이
르는 말로 쓰임.

* 만사무석: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함.

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의 동작을 묘사하여 서로를 경계하던 태도가 누그러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인물들의 표정을 비교하여 동일한 사건을 두고 느끼는 감정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인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인물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 ④ 서술자의 감회를 드러내고 자연물에 인물의 정서를 부여하여 재회 장면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주변 인물들의 말을 직접 제시하여 중심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공주를 다시 만나게 한 금령의 도움에 대한 황후의 고마움이 담겨 있다.
- ② ㉡은 공주와 혼인할 해룡이 보완해야 할 자질을 제시하며 천자가 혼인에 앞서 내세운 조건이다.
- ③ ㉢은 해룡을 부마로 삼으려는 뜻을 실현하기 위해 천자가 예부에 내린 지시이다.
- ④ ㉣은 어사가 자신과 같은 족자를 얻게 된 경위를 확인하려는 사또의 물음이다.
- ⑤ ㉤은 금령의 달라진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한 사또의 말이다.

3. 윗글의 [족자]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두 족자의 일치하는 사또와 어사가 서로의 내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며, 부자 관계를 알아보는 과정에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말도 관여한다.
- ② 사또는 족자에 그려진 아들의 신체적 특징을 읽어 내어, 어사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임을 판별한다.
- ③ 두 사람은 족자의 일치로 부자 관계를 확신하지만, 그 관계를 상대방에게 먼저 밝히기를 주저하여 서로 발설하지 못한다.
- ④ 사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족자를 어사에게 건네어, 금령이 족자를 전해 준 경위를 알아보도록 한다.
- ⑤ 어사가 자기 족자를 꺼내 보여 주자 사또가 아들을 잃은 사연을 말하므로, 어사의 족자 제시가 사또의 사연을 듣게 된 계기가 된다.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작품에서 금령의 조력은 해룡이 위기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과 흠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과정에 두루 관여한다. 인물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신이한 능력이나 하늘의 뜻과 연결하여 받아들인다. 이러한 초월적 요소가 인물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사물의 매개를 통해 인간 세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 ① 황후가 금령의 능력과 공을 인정하고 천자가 해룡을 부마로 삼으려는 데서, 초월적 조력이 개입한 사건의 해결이 인간 세계의 평가와 보상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겠군.
- ② 해룡이 혼인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태해지지 않고 군사를 다스리는 데서, 성취 이후 공적 영역에서 맡은 역할에 성실한 모습을 볼 수 있겠군.
- ③ 백발노인이 해룡의 명성을 언급하면서도 자식의 도리를 지적하는 데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성취와 가족 관계에서 남아 있는 과제가 구별됨을 볼 수 있겠군.
- ④ 사또와 어사가 족자를 대조하고 그 내력을 주고받는 데서, 금령이 마련한 재회의 단서가 인물들의 확인 과정을 거쳐 관계 회복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겠군.
- ⑤ 어사가 재회 뒤 하늘의 보살핌을 말하는 데서, 과거의 공적 성취가 부모를 찾으려는 정성의 증거로 인정되어 가족 관계의 과제가 해결되었음을 볼 수 있겠군.

1

고전소설 · 금방울전

정답 ④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 방식과 그 효과가 모두 [A] 안에서 확인되는지 판단한다. 인물들의 통곡, 서술자의 감회, 자연물에 부여한 슬픔을 구별한다.

① 인물들의 동작을 묘사하여 서로를 경계하던 태도가 누그러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근거

“부인이 내달아 어사를 안고 세 사람이 일시에 어우러져 통곡하니”

풀이 · 부적절하다

어사가 통곡하고 부인이 내달아 어사를 안는 동작은 서술된다. 그러나 서로를 경계하다가 그 태도가 누그러지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인물들의 표정을 비교하여 동일한 사건을 두고 느끼는 감정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근거

“어사가 이 말을 듣고 문득 실성통곡하거늘 사또가 또한 통곡함을 마지 아니하니”

풀이 · 부적절하다

어사와 사또, 부인은 함께 통곡한다. 인물별 표정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③ 서술자가 인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인물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근거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오?”

풀이 · 부적절하다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오?”는 장면에 대한 서술자의 감회이다. 서술자가 특정 인물에게 말을 건네어 반성을 이끌어 내는 말이 아니다.

④ 서술자의 감회를 드러내고 자연물에 인물의 정서를 부여하여 재회 장면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근거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오?” / “산천의 초목이 슬퍼하는 듯하더라.”

풀이 · 적절하다

[A]의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오?”에는 서술자의 감회가 드러난다. “산천의 초목이 슬퍼하는 듯하더라”는 인물의 정서를 자연물에 부여하여 재회의 정서를 부각한다.

⑤ 주변 인물들의 말을 직접 제시하여 중심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근거

“온 고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뉘 아니 신기하게 여기며 뉘 아니 이상히 여기리오?”

풀이 · 부적절하다

고을 사람들이 재회 소식을 신기하게 여기는 반응은 서술되어 있다.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직접 제시하지 않으며, 해룡에 대한 이전 평가와 이후 평가도 대조하지 않는다.

2

고전소설 · 금방울전

정답 ②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언을 듣는 사람과 발언에서 평가하는 대상을 구별한다. 평가를 혼인의 선행 조건으로 바꾸어 이해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① ㉠에는 공주를 다시 만나게 한 금령의 도움에 대한 황후의 고마움이 담겨 있다.

근거

“잃었던 공주를 다시 만나 천륜이 온전하게 하니 이는 다 네 덕이요 장해룡의 공이라.” / ㉠ “이런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풀이 · 적절하다

황후는 금령이 공주와 시녀를 구하고 자신이 공주를 다시 만나게 했다고 말한 뒤 ㉠의 “이런 큰 은혜”를 언급한다. 공주와 재회하게 한 도움에 대한 감사이다.

② ㉡은 공주와 혼인할 해룡이 보완해야 할 자질을 제시하며 천자가 혼인에 앞서 내세운 조건이다.

근거

“경은 모름지기 공주를 더럽다 말고” / ㉡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죽히 경의 건줄*을 받들 것이니”

풀이 · 부적절하다

㉠의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는 공주에 대한 말이다. 천자는 공주가 해룡의 아내가 될 만하다고 말하며 혼인을 권한다. 해룡에게 자질을 보완하라고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

③ ㉢은 해룡을 부마로 삼으려는 뜻을 실현하기 위해 천자가 예부에 내린 지시이다.

근거

“부마를 삼고자 하실새 바뻘 예부에 명하사” / ㉢ “택일(擇日)하라.”

풀이 · 적절하다

천자는 해룡을 “부마를 삼고자” 예부에 ㉢의 “택일하라”라는 명을 내린다. 혼인 날짜를 정하도록 하여 자신의 뜻을 구체적인 준비로 옮긴 것이다.

④ ㉔은 어사가 자신과 같은 족자를 얻게 된 경위를 확인하려는 사또의 물음이다.

근거

㉔ “그 족자는 어디서 났소?” / “금령이 갈 때에 족자를 주고 가던 사연을 낱낱이 고하니”

풀이 · 적절하다

사또는 두 족자가 같다는 것을 확인한 뒤 ㉔의 “그 족자는 어디서 났소?”라고 묻는다. 이에 어사가 금령에게 족자를 받은 사연을 말하므로, 물음은 족자의 입수 경위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⑤ ㉔은 금령의 달라진 모습을 설명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한 사또의 말이다.

근거

㉔ “허물을 벗고 나니 온갖 아름다운 자태를 갖춘, 만고에 드문 절색(絶色)이라.”

풀이 · 적절하다

사또는 ㉔에서 금령이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자태를 갖추었다고 설명한 뒤 “만고에 드문 절색”이라고 평가한다. 변화한 외모에 대한 설명과 칭찬이다.

길영예듀 정답 저격

근거 직행

평가받는 사람과 말을 듣는 사람을 구별한다

덕이나 자질을 평가하는 말을 보면 먼저 그 평가의 대상을 확인한다. ㉑ 앞의 “공주”와 뒤의 “경의 건줄을 받들 것”을 연결하면, 덕을 평가받는 사람은 공주이고 말을 듣는 사람은 해룡이다. ㉒의 “해룡이 보완해야 할”은 평가 대상을 바꾸었으므로 여기서 부적절함이 확정된다. 건줄의 뜻이 낱설면 지문의 주석까지만 확인한다.

자질의 평가 대상 확인 → ㉑의 앞뒤와 건줄 주석 → 공주와 해룡의 역할 구별 → ㉒ 판단 종료

3

고전소설 · 금방울전

정답 ①

윗글의 [족자]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족자의 일치라는 단서와 부자 관계의 확인을 구별한다. 누가 먼저 무엇을 말하고 보여 주었는지 사건의 순서를 확인한다.

① 두 족자의 일치는 사또와 어사가 서로의 내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며, 부자 관계를 알아보는 과정에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말도 관여한다.

근거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서로 발설(發說)치 못하고 주저하다가” / “내 아이는 등에 일곱 개의 사마귀가 복두칠성처럼 나 있으니”

풀이 · 적절하다

두 사람은 족자가 같아도 “뚜렷한 증거가 없어” 주저하며 내력을 더 묻는다. 사또가 아들의 등에 난 일곱 사마귀를 말하자 세 사람의 상봉이 이루어진다. 족자의 일치에 이어 신체적 특징에 관한 말도 관계를 알아보는 과정에 작용한다.

② 사또는 족자에 그려진 아들의 신체적 특징을 읽어 내어, 어사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임을 판별한다.

근거

“내 아이는 등에 일곱 개의 사마귀가 복두칠성처럼 나 있으니 이것으로 내 아들임을 아노라.”

풀이 · 부적절하다

사또는 자기 아들의 등에 복두칠성 같은 사마귀가 있다고 말한다. 그 특징을 족자의 그림에서 읽어 냈다고 서술되지는 않는다. 사또가 아들의 특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림을 판독했다는 뜻으로 바꾸었다.

③ 두 사람은 족자의 일치로 부자 관계를 확신하지만, 그 관계를 상대에게 먼저 밝히기를 주저하여 서로 발설하지 못한다.

근거

“두 족자 작은 차이도 없어 조금도 다름이 없거늘” /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서로 발설(發說)치 못하고 주저하다가”

풀이 · 부적절하다

두 사람이 발설하지 못하는 이유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이다. 부자 관계를 이미 확신하면서 누가 먼저 밝힐지만 망설이는 상황이 아니다.

④ 사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족자를 어사에게 건네어, 금령이 족자를 전해 준 경위를 알아보도록 한다.

근거

“어사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비단 주머니를 열어 족자 하나를 내어 걸거늘” / ㉔ “그 족자는 어디서 났소?”

풀이 · 부적절하다

어사는 사또의 족자를 보고 자신이 가진 족자를 꺼내 건다. 사또는 어사가 족자를 얻은 경위를 말로 물음 뿐, 자기 족자를 어사에게 건네어 경위를 알아보도록 하지 않는다.

⑤ 어사가 자기 족자를 꺼내 보여 주자 사또가 아들을 잃은 사연을 말하므로, 어사의 족자 제시가 사또의 사연을 듣게 된 계기가 된다.

근거

“노부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더니 전란 중에 잃은 지 십팔 년이라.”
→ “어사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비단 주머니를 열어 족자 하나를 내어 걸 거늘”

풀이 · 부적절하다

사또가 아들을 잃은 사연과 그림을 얻게 된 일을 먼저 말한다. 어사는 “이 말을 듣고” 자기 족자를 꺼낸다. 사연을 들은 일과 족자를 제시한 일의 선후가 바뀌었다.

4

고전소설 · 금방울전

정답 ⑤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월적 조력이 인간 세계의 성취와 관계 회복에 작용하는 양상을 살핀다. 인물이 말한 조력의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공적 성취와 효성을 곧장 연결하지 않는다.

보기

이 작품에서 금령의 조력은 해룡이 위기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과 흠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는 과정에 두루 관여한다. 인물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을 신이한 능력이나 하늘의 뜻과 연결하여 받아들인다. 이러한 초월적 요소가 인물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사물의 매개를 통해 인간 세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① 황후가 금령의 능력과 공을 인정하고 천자가 해룡을 부마로 삼으려는 데서, 초월적 조력이 개입한 사건의 해결이 인간 세계의 **평가와 보상**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겠군.

근거

“이는 다 네 덕이요 장해룡의 공이라.” / “경과 공주는 천정배필이라.” / “부마를 삼고자”

풀이 · 적절하다

금령은 비상한 능력으로 공주를 구하는 데 힘을 보탠다. 황후는 금령의 덕과 해룡의 공을 인정하고, 천자는 해룡을 치하하며 혼인을 추진한다. 조력이 개입한 성취에 인간 세계의 인정과 보상이 뒤따른다.

② 해룡이 혼인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나태해지지 않고 군사를 다스리는 데서, 성취 이후 **공적 영역에서 맡은 역할에 성실한 모습**을 볼 수 있겠군.

근거

“군기와 군법을 가르치고 연습하며 밤낮으로 나태한 마음을 먹지 않고 분주히 국사를 극진히 살피더니”

풀이 · 적절하다

해룡은 혼인을 앞두고 “나태한 마음을 먹지 않고” 군기와 군법을 가르치며 국사를 돌본다. 혼인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신이 맡은 공적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백발노인이 해룡의 명성을 언급하면서도 자식의 도리를 지적하는 데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성취와 가족 관계에서 남아 있는 과제가 구별됨**을 볼 수 있겠군.

근거

“영웅호걸로 명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위엄을 천하에 떨쳤으되” / “정성이 부족하여 자식의 도리를 차리지 못하는 것이니”

풀이 · 적절하다

백발노인은 해룡의 명성과 위엄을 말한 뒤, 부모를 찾지 않아 자식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공적 성취를 이룬 해룡에게도 가족 관계에서 해결할 일이 남아 있음을 드러낸다.

④ 사또와 어사가 족자를 대조하고 그 내력을 주고받는 데서, 금령이 마련한 재회의 단서가 **인물들의 확인 과정을 거쳐 관계 회복**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겠군.

근거

“두 족자 작은 차이도 없어 조금도 다툼이 없거늘” / “금령이 갈 때에 족자를 주고 가던 사연을 낱알이 고하니”

풀이 · 적절하다

금령이 전한 두 족자가 일치하자 두 사람은 그 내력을 더 묻고 설명한다. 조력자가 건넨 물건이 인물들의 확인을 거쳐 상봉에 이르는 매개로 작용한다.

⑤ 어사가 재회 뒤 하늘의 보살핌을 말하는 데서, 과거의 **공적 성취가 부모를 찾으려는 정성의 증거로 인정**되어 가족 관계의 과제가 해결되었음을 볼 수 있겠군.

근거

“소자,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를 만나 뵈오니” / “하늘이 우리를 보살피시어 금령에게 지시하여 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풀이 · 부적절하다

해룡은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를 만나”게 되었다며 자책하고, 금령의 개입을 하늘의 보살핌으로 받아들인다. 공적 성취가 효성의 증거로 인정되었다고 하지 않는다. 상봉의 이유를 사회적 성공에 대한 평가로 바꾸어 연결한 설명이다.

길영예듀 정답 저격

근거 직행

공적 성취를 정성의 증거로 연결한 부분을 먼저 본다

⑤의 “공적 성취가 부모를 찾으려는 정성의 증거로 인정되어”를 먼저 의심한다. 사회적 성공을 부모를 찾으려는 개인적 정성으로 연결한 근거가 필요한 대목이다. 선지가 지목한 재회 뒤 어사의 말로 바로 가면,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를 만나 뵈오니”라고 자책하고 하늘이 금령에게 지시하여 재회하게 했다고 설명한다. 공적 성취를 효성의 증거로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⑤를 정답으로 확정하고 끝낸다.

공적 성취 → 정성의 증거라는 연결 의심 → 재회 뒤 어사의 발언 확인 → ⑤ 판단 종료